

# 방송·미디어·통신 정책에 '청년 시각' 더한다

- '제3기 방미통위 2030자문단 출범식' 개최...“청년세대 인식·의견 전달”

방송·미디어·통신 정책 전반에 대해 청년세대 인식 및 의견을 전하는 핵심 창구 역할을 담당할 2030세대 자문단이 출범했다.
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(위원장 김종철)는 7일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방미통위 정책 전반에 대해 청년 관점으로 정책을 점검(모니터링)하고 의견을 전달할 '제3기 2030자문단' 출범식을 개최했다.

자문단은 만 19~39세 대학생과 직장인, 교사, 연구원, 프리랜서 강사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성인 24명으로 구성됐으며, 성별·지역 균형 및 방송·미디어·통신 정책에 대한 관심도 등을 고려해 선발됐다.

향후 이들은 ▲방송·광고 이용자보호 ▲미디어·디지털 공정경쟁 및 접근권 보장 ▲'방송 100년' 기념 방송·콘텐츠 산업 진흥 등의 정책 분야 점검 및 제언 ▲청년 여론 수렴 및 전달 등의 핵심 소통 창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.

이날 출범식은 2030자문단 소개 및 역할 설명과 자문단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, 방미통위 정책에 대한 교육, 1차 정례회의 순으로 진행됐다.

출범식에 참석한 고민수 상임위원은 “청년 여러분의 시각을 반영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방송·미디어·통신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”며 “2030자문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
붙임. '제3기 방미통위 2030자문단 출범식' 계획안

담당 부서	기획조정관	책임자	과 장	김정섭 (02-2110-1320)
	혁신기획담당관	담당자	청년보좌역	권정혁 (02-2110-1329)

**□ 개요**

-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에 관한 청년세대 인식을 전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할 ‘제3기 2030자문단’ 출범식 및 워크숍 개최 계획(안)

**< 방미통위 제3기 2030자문단 개요 >**

- (인원 / 임기) 25명\* / ~'27.3.22.(1회 연임 가능)
  - 만19세~39세를 대상으로 하되, 성별·지역 균형 등을 고려하여 구성
  - \* 신규 자문단원 13명, 연임 자문단원 11명과 단장(청년보좌역) 1명을 포함
- (역할) 방미통위 정책\* 관련 모니터링 및 제언, 청년 여론 수렴 및 전달 등
  - \* 방송(광고), 이용자 보호, 미디어·디지털 공정경쟁 및 접근권 보장, ‘방송 100년’ 기념 방송·미디어산업 진흥과제 추진

**□ 세부계획(안)**

- (일시/장소) ‘26.5.7.(목) 13:30~18:00 / 서울 시청자미디어센터 세미나실
- (주요 일정)

구분	시간	주요내용	비고
집결	13:30~14:00 (30')	참석자 등록	
1부	14:00~14:03 (3')	개회	청년보좌역
	14:03~14:06 (3')	인사말씀	상임위원님
	14:06~14:10 (4')	2030자문단 소개 및 역할 설명	청년보좌역
	14:10~14:15 (5')	위촉장 수여	상임위원님
	14:15~14:18 (3')	기념촬영	
14:18~14:30 (12')		휴식	
2부	14:30~15:30 (60')	교육①‘자문단이 주목하여야 하는 2026 방송·미디어·통신 정책’	노창희 소장 (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)
	15:30~16:30 (60')	교육②‘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 최신 법적 쟁점’	손승현 변호사 (법무법인 세담)
	16:30~18:00 (85')	1차 정례회의 진행	청년보좌역